

보도 일시	2024. 07. 15(월)		총 1쪽 / 사진 2컷
배포 일시		담당 부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기획운영팀
배포 부서	경기문화재단 홍보팀	담당자	이지희(031-270-8671)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방문

- ▶ 염종현 의장, 개관 이래 13년간 620만명 도민이 방문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임직원 격려
- ▶ 송문희 관장,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박물관 전시실 개편에 전폭적인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7월 12일(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2011년 9월 개관한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은 현재까지 620만명, 1,400만 경기도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송문희 관장은 이날 염종현 의장을 접견하면서 국내 최초, 최대 국공립 독립형 어린이박물관인 이곳이 전국 유관 기관의 벤치마킹 최고 순위이자, 경기 문화공간 트렌드 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설립목적 달성도(90점) 및 공적 책임(97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송 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변화 속도가 빠른 요즘,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박물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경기도어린이 박물관은 전시면적이 1천평에 달하지만 개관 이래 현재까지 개편이 이루어진 공간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관람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어린이들의 전시체험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전시 교체가 더더욱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어린이박물관 설립과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경기도 세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1순위로 특화되어야 하고, 저출생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시대에 어린이가 상상력과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체험물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이번 방문에 남종섭 경기도의원, 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현수 용인시의원,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방안을 함께 논

의했다.

※ 붙임) 염종현 의장 방문 사진 2컷

붙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방문



▶ 7.12(금)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방문(오른쪽부터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전자영 의원, 남종섭 의원, 염종현 의장, 송문희 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임현수 용인시의원)



▶ 7.12(금)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방문